

순창 작은 목욕탕, 사랑방 역할 톡톡

지난해 9곳 운영 4만명 이용

생활 밀착형 정책 '호응'

지역민 정서 안정 도움

순창의 작은 목욕탕이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9개 면에서 운영 중인 작은 목욕탕을 이용한 지역민들은 4만7445명에 달했다.

순창군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2만9698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9개 면에서 운영 중인 작은 목욕탕을 이용한 지역민들은 4만7445명에 달했다.

우선,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군은 10개면 중 9개 면에 작은 목욕탕을 개설해 면 소재지만 나가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다.

순창군은 오는 4월 구림면에 마지막으로 작은목욕탕(138㎡)을 조성, 10개 면 전체에 목욕탕을 세울 계획이다.

읍내까지 '원정 목욕'을 가지 않아도 되는 만큼 고령층이 많이 사는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담공무원을 두고 관리하면서 이른 시간 내서는 주민을 위해 운영시간도 앞당겼다. 이보다보니 농한기인 겨울철이면 목욕탕 앞에서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목욕탕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사랑방 구실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순창군은 지난 2013년부터 작은 목욕탕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작은목욕탕 이용객이 급증할 것을 감안, 복층·쌍지면 목욕탕 탱크용량을 10t에서 15t으로 늘리고 인계·적성면 온수탱크 용량도 8t에서 13t으로 확충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쏟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작은 목욕탕이 목욕도 즐기고 대화도 나누면서 공동체 복원과 정서적 안정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기자 jyg@kwangju.co.kr



이웃 사랑 담은 떡국 한 그릇

익산시 낭산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적십자봉사회 소속 회원들이 8일 낭산경로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대접했다. <익산시 제공>

정읍 동학마라톤대회

내달 25일 개최 ... 참가 모집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리는 '제 124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가 다음달 25일 정읍에서 열린다.

대회는 풀, 하프, 10km, 5km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정읍동학마라톤 누리집(www.jdmarathon.kr)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5km는 1만원, 10km부터는 3만원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 일 제정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전지훈련 메카로 각광

축구 24개팀·1400명 방문

숙박·음식 등 지역상권 활기

남원을 찾아 전지훈련을 벌이는 스포츠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수원 삼성, FC 서울을 비롯한 프로팀 산하 축구팀과 U-12, U-10 등 총 24개팀 1400명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전지훈련과 스토브 리그에 참여할 예정이다.

선수들은 춘향골체육공원, 이백 거점 스포츠 클럽 축구장, 용성고 축구장 등에서 체력훈련 및 연습 경기를 펼칠 계획이 있다.

남원시는 이번 전지훈련으로 숙박, 음식점, 특산물 판매 등으로 7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축구 뿐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팀 유치, 국제·전국대회 스포츠 마케팅을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끔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원시는 전지훈련을 위해 지역을 찾는 선수단 및 학부모들을 위한 몽골텐트와 난로 등을 제공하는 등 각종 편의시설을 원키로 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부안군, 외국 관광객 유치 정책 발굴 나선다

중국문화체험 등 인프라 구축

외국인 대상 관광료 할인도

부안군이 외국 관광객 유치를 나섰다. 부안의 직소폭포·채석강·모항 등 국가 지질공원과 양장농업 등 특화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는 등 외국인 유치를 공을 들이고 있다.

8일 부안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5명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물 관

람·사용료를 단체가로 적용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본격 운영키로 했다.

외국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것으로, 부안청림전문대 청소년수련시설, 부안 누에타운,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부안청자박물관 등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지역 특화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광시설물 관람·사용료의 단체 기준을 보통 20명으로 적용하는 상황에서 부안군의 조치는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부안군은 중국교육문화친화도시

조성을 내걸고 차이나교육문화특구를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관련 사업으로 부안중국문화원을 개원하고 기획전시·공동 프로그램도 마련해 선보이는 한편, 중국문화체험캠프 등도 진행중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외국관광객들이 편안히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김민준기자 jun@

남원에 대규모 애견 놀이공원 조성

야외 운동시설 등 5월 개장

남원에 애견 놀이공원이 생긴다. 남원시는 황금 개띠 해를 맞아 요천생태습지공원 안에 2000㎡ 규모의 애견 놀이공원을 만든다고 8일 밝혔다.

공원에는 소형견과 중·대형견이 분리돼 뛰어놀 수 있는 운동시설과 음수대,

애견인 쉼터, 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1억원을 투입해 오는 5월 개장을 목표로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560여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지만 반려견과 주인을 위한 야외 운동시설이 전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애견 놀이공원이 들어설 요천생태습지공원 전경. <남원시 제공>

익산 서동축제 5월 황금연휴에 열린다

서동공원 일대서 나흘간

백제 무왕이 된 서동과 신라 선화공주의 사랑을 주제로 한 익산의 서동축제가 5월 황금연휴에 열린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백제왕도를 주제로 한 서동축제가 5월 4일부터 나흘간 금마면 서동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5일 어린이날, 6일은 토요일, 7일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 포함돼 있다.

시는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 백제왕도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연휴 개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콘텐트 전문가들로 축제추진위

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 홍보, 현장 구성, 축제 준비 등을 맡겼다.

특히 올해는 국내 최고(最古)와 최대(最大) 석탑으로 꼽히는 백제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이 17년간 해체·보수 공사를 마치고 일반에 공개되는 만큼 백제왕도 익산도 함께 조명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미륵사지 석탑과 서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시는 서동유를 소재로 한 창작 로고송을 공모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축제를 알릴 예정이다.

익산=유정영기자 yjy@kwangju.co.kr

군산시 '시민 정보화교육' 무료 실시

무료로 파워포인트와 엑셀 프로그램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군산시는 오는 22일부터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

기간은 올 12월 14일까지로, 군산시청 전산교육장과 시립도서관 전산교육장에서 이뤄진다.

인터넷활용, 문서작성, 파워포인트,

엑셀, 이미지편집, 동영상제작·활용, 스마트폰활용 등 9개 과정으로 나눠 48차 례에 걸쳐 이뤄진다.

프로그램별로 기초·심화과정까지 1~4주 과정으로 운영돼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

신청은 시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educ.gunsan.go.kr)로 하면된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생물권보전지 고창

자연생태원 건립

38억 투입 2020년 완공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에 자연생태원이 들어선다.

고창군은 8일 군청 상황실에서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 38억원을 들여 자연생태원, 유리온실, 야생화단지, 습지체험장 등을 갖춘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자연생태원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 복원의 보전 역할 뿐 아니라 인근 청송테마공원·고인돌공원·온곡습지를 연결하는 생태관광벨트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생태도시 고창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박정진기자 phj@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 장성 북이면 백암골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두암동 2층 남향주택 대지 248㎡ 건물 154㎡ 사할도 적합 3억
- 북구 운암동 한국아파트 165㎡ 전향층을 13층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담양군 창평 의항리 9544㎡ 공장용 적합 평당 45만원
- 신안군 입해를 도촌리 전원주택용 적합 3206㎡ 6600만원
- 순창 북용면 전 3천여평 포함 산 75780㎡ 4억2천
- 함평읍 물머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5억

상가건물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건물 247㎡ 1층 가게, 2층 투룸, 3층 안집, 은행 1억5천 생활편리 5억7천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물 1164㎡ 12억8천
- 송정동 원룸건물 대지 564㎡ 건물 596㎡ 보증금 5천에 월6000신 13억2천
- 월산동 바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유동 삼성병원부근 대지 598㎡ 건물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 영암 월출산 일 판선 땅 1578㎡ 경관좋은 4억6천
- 월산동 농성초교 건너편 대지 132㎡ 미트와 주택(3층) 189㎡ 4억6천
- 시우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평당210만원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중흥시장 부근 4층 상가주택 177㎡ 건물 482㎡ 2억7천
- 담보용 남구 송하동산 22556㎡ 감정 2억4700 매도 1억2천
- 서동 제일파크아파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능 1억천
- 장성 백암사역부근 모텔 땅 364㎡ 객실17 달방임대좋은 2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127 건물 297 감정 10억7천 은행 6억 교환가능 7억3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헌전, 농성초교옆문앞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 - 4200만원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팟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타 부동산 교환가
- 매매 - 14억

문의 H.010-3605-5000

토지구합

1.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도곡온천 가는길 좌 우측 도로변 토지
2. 화순읍 신기리 만연사 가는길 또는 화순읍 유천리 전대병원 가는길 좌 우측 도로변 토지 약 2,000㎡ 내외

H. 010-3162-4989
중앙공인중개사 대표 이장현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소 떡갈비/튀김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원크기
• BN 1500 : 1440(L) x 650(W) x 1250(H)
• BN 1000 : 940(L) x 650(W) x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98/9 Fax. 02-2029-6404
광주 : 광주광역시 광안구 학남산단4번로 45(창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6년

광주일보
창사66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너지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